

대학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Practical Issues Faced by University Librarians

김 용 근(Young-Gun, Kim)**

〈목 차〉

- | | |
|-----------------|------------------------------|
| I. 서론 | IV. 대학도서관협의회 문헌과 학술지 논문과의 차이 |
| II. 수집자료의 양적 분석 | V. 결론 |
| III. 수집자료의 주제분석 | |

초 록

국립 및 사립의 두 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발행하는 매체를 통하여 보고되는 현장 사서들의 연구논문과 이들 기관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서 발표되는 문헌은 대학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사서들의 관심사항을 가장 정확하게 제시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이 문헌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대학도서관은 어떤 부문의 업무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주제영역별로 알아 보는 것이다.

주제어: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 사서, 대학도서관협의회

Abstract

The papers written by university librarians in the publications of university library association and the presentations at the seminars and workshops organized by the university library association will reveal the real problems and interests of the university libraries. This paper intends to find out in what areas the university libraries have most interests and problems and how serious they are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papers and presentations.

Kew Words: university library, university librarian, university library association

* 본 연구는 2003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ygkim@cu.ac.kr)

· 접수일 : 2003. 6. 10 · 최초심사일 : 2003. 6. 13 · 최종심사일 : 2003. 6. 16

I. 서 론

개별 도서관마다 지니는 독특한 정보환경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도서관 현장에서 일하는 사서들은 연구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론을 토대로 실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도서관 실무자나 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유형이 다르므로 특정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의 해결절차에서도 상당히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업무처리 방식이 어떠하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들의 운영실적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매일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보고는 도서관내에서만 통용되고 있다. 보고 형식은 수치적으로 표시되는 실행에 대한 업무보고 뿐이며, 더구나 도서관계에 공개되고 있는 개별 도서관의 업무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도서관 업무처리에 대한 현황보고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원시 데이터로 하여 고찰하는 연구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기초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질문지나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정교하게 수행되는 개별 도서관 운영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도서관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유형의 문제들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바로 개별 도서관에 대한 진단보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 도서관들의 운영에 대한 진단 보고서가 모이면 그것에 대한 처방은 훨씬 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적합한 처방은 언제나 정확한 진단에 기초를 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서관의 문제점을 원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연구자들은 연구를 위하여 어떻게 데이터를 얻고 있으며 도출되는 결론은 도서관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선 그 환경이 우리 사회의 도서관 사정과는 많이 다른, 서양 도서관에서 배태된 이론을 어떤 수정과 보완도 없이 우리 사회의 도서관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설사 도서관 현장에 대한 진단이 자세하더라도 잣대가 맞지 않으니 결과로 도출되는 처방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론의 적용에서 부적합함과 더불어 현장 문제에 대한 진단에서도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개별 도서관에서 보고되는 현장보고서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도서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수행에서의 문제점을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연구자가 연구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하기 위하여 시간을 정하여 질문지를 배포하거나 인터뷰를 통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는 극히 제한적인부분에 대한 도서관 조사보고가 되고 마는 것이다. 연구자가 도서관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 어떤 요소에 한정하여 그것들이 질문지 항목으로 구성되고, 인터뷰의 질문사항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서관 현장의 관심사와 연구자들의 연구주제가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상은 무

엇이라 설명할 수 있을가. 위의 설명으로 여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양 집단간에 도서관 실험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관찰의 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도서관 현장사서들의 관심주제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제기되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생산과 이용에 있다기 보다 도서관이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나는 지식정보의 유통 현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사실이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도서관이라는 실체가 없이도 도서관적 기능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러한 성급한 예측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실정이다¹⁾

가상도서관의 유용성 보다는 도서관 실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배경에는 오랜 시간 도서관 기능에 대하여 가지던 이용자들의 신뢰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새로운 도구가 나타나 이와 유사한 능력을 발휘하더라도 쉽게 무너져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 안에는 도서관이 도서관 전문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기도 한 것이다. 정보기술에 의한 지식정보의 유통과정에는 정교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여지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충분히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도서관의 실행에 있어서 이론과 실천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다음의 지적이 도움이 된다. “이론없는 실행이나 실행을 근거로 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는 제한된 상황에만 적용되어 도서관학에 필요한 이론정립을 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학문적인 연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난이 대두되기 쉽다. 그러나 이 두 연구가 모두 필요한 것이므로 도서관학 분야의 모든 종사자들이 협력하여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연구를 시도할 때에 학문의 진정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²⁾

우리나라에서 대학도서관 내부의 사정을 자세하게 도서관계에 알리는 매체로는 소수의 도서관에서 만들고 있는 소식지들이다. 최근에는 몇 개의 대학도서관에서 웹진 형식으로 발행하고 있다³⁾ 그러나 그 숫자가 적어 대학도서관 운영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행이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사정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 볼 수 있는 두 '협의회'의 매체가 있다. 하나는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가 1983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국립대학도서관보'이다. 여기에는 대학도서관의 문제점과 관심사항에 대한 사서진의 논문과 '도서관·정보학 세미나' 결과를 논문형식으로 수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⁴⁾에

1) '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 현장에서 크게 관심을 보였던 디지털도서관에 관한 논의를 의미한다.
 2) 임영애, “도서관학 연구문헌의 주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창립 30주년기념 학술문집, (1989, 10), p.233.
 3) '도서관 소식지'를 웹진 형식으로 발행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은, 경희대도서관 서울 캠퍼스, 경희대도서관 수원 캠퍼스, 대구대도서관, 영남대도서관 등이다. 참조할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211.220.233.144/libinfo/Text/Bulletin>
 4)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 <http://kpula.or.kr>

서 생산하는 몇 가지 종류의 자료들이다.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1981년부터 도서관장과 관리자를 위한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1986년부터는 평사서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있다. 이 두 종류의 회합에서는 도서관 주제에 관한 발표가 있다. 이것들이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2000년부터는 '사대도협회지'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 간행물에는 사서 개인들의 논문을 주로 수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에 의하여 작성된 연구논문과 적어도 주제의 선정과정에서 사서들의 참여가 완전하게 보장된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서 발표된 문헌의 내용을 분석하여 대학도서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사서들의 관심사항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상당히 근접되고 있는 자료들이 위의 두 협의회에서 생산하는 문헌이라고 볼 수 있다.

II. 수집자료의 양적 분석

1983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는 '국립대학도서관보'에는 사서 개인의 연구논문과 매년 두 차례 개최되는 '도서관학·정보학 학술세미나 발표요지'를 수록하고 있다. '국립대학도서관보'가 창간된 1983년(1집)부터 1989년(7집)까지는 '사서직 실무자 세미나 발표요지'의 형식으로, 1990년(8집)부터는 '도서관학·정보학 학술세미나 발표요지'라는 명칭으로 수록되고 있다.

'국립대학도서관보' 1집에는 네 차례에 ('78년, '79년, '81년, '82년)걸친 '실무자 세미나 요약'을 한꺼번에 소개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문제를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실무자 세미나는 '국립대학도서관보'가 발간되기 이전부터 개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78년 처음으로 열린 1차 '실무자 세미나'에서는 '수서업무의 발전 방향', '대학도서관의 지정도서제도 운영', '대학도서관의 상호협력', '장서관리업무의 개선' 등에 관한 주제들이 발표되고 논의되었다. 2차에서는 '분류실무', '기본기입 선정', '도서관 상호협력 체계', '분담목록'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70년대말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들이 일상 업무에서 제기되는 기본적인 문제들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1981년부터 도서관장 및 중견사서들을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1986년부터는 평사서들을 위하여 워크숍을 매년 열고 있다. 이러한 행사에서는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사서들의 관심사를 발표주제로 하여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는 2000년부터 '사대도

여기에는 세미나, 워크숍 정보와 '사대도협회지'는 전문이 올려져 있다.

협회지'를 연간으로 발행하고, 사서 개인의 연구논문들이 수록되고 있다. 이들 논문에는 개별 사서들이 소속된 대학도서관을 사례로 하여 특정 업무분야의 실행상황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꾸며진 경우가 많다. 대학도서관의 속사정을 알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분석에 사용된 문헌은 '국립대학도서관보'에서 160건, '사대도협회지'에서 49건, 사대도협회의 세미나 자료에서 65건, 워크숍 자료에서 57건으로 모두 331건의 문헌이다.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서 발표되는 논문은 그 주제의 결정에 있어서는 대학도서관의 사서진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사서진에 의하여 작성되는 연구논문이나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서 발표되는 문헌도 결국은 대학도서관 현장 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자료의 분석에서도 개인 논문, 워크숍 및 세미나의 문헌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수집된 문헌을 주제구분에 따라 분류하고, 대학도서관의 문제점과 사서들의 관심사항은 어떤 주제구분에 집중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은 무엇인가를 알아 보는 것이다. 또한 약 20년 동안 시간이 경과되면서 대학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학도서관의 문제와 실무 사서진의 관심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문헌에 대한 주제구분은 제버린과 베카리(Jaervelin, K.& Vakkari, P.)의 분류기준⁵⁾과 ISA(Information Science Abstract)의 분류표를 토대로 하고 본 연구주제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컨대 ISA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학 분야의 정보생성, 정보인식 등의 주제구분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1>은 수집자료의 주제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관심을 보이거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주제영역은 대학도서관 경영(109건, 33.0%), 정보시스템(75건, 22.6%), 문헌정보학 일반(54건, 16.3%), 자료조직(36건, 10.9%), 참고정보서비스(35건, 10.6%), 정보처리(19건, 5.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수집자료의 주제분포

연도	83-87	88-92	93-97	98-03	계
주제영역					
자료조직	13 (3.9)	9 (2.7)	7 (2.1)	7 (2.1)	36 (10.9)
도서관경영	19 (5.7)	18 (5.4)	21 (6.3)	51 (15.4)	109 (33.0)
참고정보 서비스	4 (1.2)	6 (1.8)	5 (1.5)	20 (6.0)	35 (10.6)
문헌정보학 일반	3 (0.9)	4 (1.2)	19 (5.7)	28 (8.5)	54 (16.3)
정보처리	0 (0.0)	1 (0.3)	5 (1.5)	13 (3.9)	19 (5.7)
정보시스템	18 (5.4)	20 (6.0)	12 (3.6)	25 (7.5)	75 (22.6)
서지학	0 (0.0)	0 (0.0)	0 (0.0)	3 (0.9)	3 (0.9)
계	57 (17.2)	58 (17.5)	69 (20.8)	147 (44.4)	331 (100)

5) Jaervelin,K. & P. Vakkari,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12, No.4(1990), pp.395-421.

<표 2>는 수집자료의 세분 주제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수집자료의 세분 주제분포

주제구분		연도				계(비율)
		83-87	88-92	93-97	98-03	
자료조직	분류	3	0	1	1	5 (1.5)
	편목	9	8	6	4	27 (8.2)
	MARC	1	1	0	2	4 (1.2)
대학도서관경영	장서개발	11	10	8	9	38 (11.5)
	대학도서관경영	6	5	13	39	63 (19.0)
	대출관리	2	3	0	3	8 (2.4)
정보서비스	도서관서비스	4	4	4	18	30 (9.1)
	참고정보서비스	0	2	1	1	4 (1.2)
	전자정보서비스	0	0	0	1	1 (0.3)
문헌정보학 일반	정보원	1	0	0	0	1 (0.3)
	전문직	1	4	15	15	35 (10.6)
	저작권	0	0	2	2	4 (1.2)
	교육	1	0	2	11	14 (4.2)
정보처리	검색	0	1	0	2	3 (0.9)
	OPAC	0	0	1	0	1 (0.3)
	웹자원	0	0	1	10	11 (3.3)
	인터넷	0	0	3	0	3 (0.9)
	축적	0	0	0	1	1 (0.3)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8	6	4	13	31 (9.4)
	데이터베이스	0	0	1	4	5 (1.5)
	전자도서관	0	0	1	7	8 (2.4)
	전산화	10	14	6	1	31 (9.4)
서지학	서지학	0	0	0	3	3 (0.9)
계		57	58	69	147*	331 (100)

* '사대도협회지'의 논문이 포함되기 때문에 문헌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는 <표1>에 나타난 주제영역에 대하여 약간의 설명을 가하기로 한다.

대학도서관 경영분야에는 대학도서관 경영관리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문헌이 많다. 이 영역에 문헌의 양이 많은 요인은 장서개발과 대출업무에 대한 사항이 이 영역에 소속되기 때문일 것이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많은 논문이 발표된 주제구분으로는 정보시스템 영역으로 여기에는 네트워크와 도서관전산화에 관련된 주제가 분류되고 있다. 도서관간의 자원공유는 상호대차라는 개념에서부터 접근에 의한 정보입수라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봉사에 이르는 넓은 의미의 도서관 장서개념이라,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관심을 가지게되는 주제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80년대 우리나라 도서관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도서관전산화 문제는 사서들에게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가져다준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헌정보학 일반의 분류에는 전문직, 저작권 그리고 이용자교육에 대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전문직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 사서직이 도입된 이래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우리의 교육제도 및 도서관환경과는 거리가 있는 미국의 문헌정보학을 수입해 와서 우리의 체질에 맞게 제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도서관 환경이 관련된 어떤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또한 저작권 문제도 이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인쇄자료 중심의 정보생산과 유통과정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체제로 운영되던 저작권 문제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생산과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음으로 도서관에서의 자료조직 문제는 도서관전산화 이전 시기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양상은 대단히 차이가 있다. 분류와 목록작업이 개별 대학도서관에서 이루어지던 시대와 목록정보의 다운로드와 공동목록의 개념이 적용되는 지금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주제구분에 속한 문헌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참고정보서비스로 대표되는 도서관봉사는 도서관 소장자료에 한정하여 서비스하던 시대와 인터넷과 웹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재의 그것과는 그 패턴이 달라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처리 영역에는 웹자원에 대한 부문이 포함되고 있다. 대학도서관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웹기반 정보서비스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와서 대학도서관 운영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주제이다.

Ⅲ. 수집자료의 주제분석

<표2>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당면하는 대학도서관의 문제점과 그들의 관심사항을 <표1>보다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사서 개인이 논문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는 문헌에는 대학도서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문의 업무나 현상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까지 제시해 놓고 있는 보고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논문에서는 제목에 '사례연구' 또는 '특정 대학도서관의 경우'라고 표시해 두고 있다. 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에서도 특정 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는 어디까지나 어떤 현상에 대한 일반성을 도출해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사례'를 원시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분석대상에 포함하는 또 하나의 문헌의 종류에는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서 발표되고 토의된 주제자료이다. 이러한 모임에서 발표될 내용의 주제에 대한 결정은 개인 연구자가 지적호기심에 따라 어떤 연구주제를 결정하는 연구자의 그것과는 다르다. 보통 세미나 개최 시점에서 대학도서관들이 가지는 공통된 관심주제나 문제점들을 발표주제로 하는 것

이다.⁶⁾ 따라서 세미나의 주제는 바로 대학도서관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수집자료 중에서 세분주제별로 문헌의 수가 많은 순으로 내용을 분석한다. 분석대상이 된 주제의 시기별 변화양상도 살펴볼 것이다.

1. 대학도서관 경영

이 영역에 포함된 문헌은 대학도서관 운영 전체에 걸쳐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서 개인의 연구논문에서나 세미나와 워크숍의 주제에서도 현대를 일컫는 다양한 표현들, 예를들면 '2000년대', '지식기반 사회', '21세기', '미래사회', '디지털 환경', '지식 경영', 'IT' 등을 수식어로 하는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주제로 하고 있는 문헌이 가장 많다. 이러한 유형의 문헌이 많은 것은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서의 발표주제는 넓은 범위로 대학도서관을 개관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과도 같이 되어있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주제구분은 '조직개편'에 관련된 문헌이다. '조직구조의 변화', '도서관 이원체제', '직제개편', '구조조정', 등의 개념이 들어있는 '대학도서관의 역할'이다. 조직개편에 관한 주제는 본 연구의 원시 데이터로 사용되고 있는 문헌들의 생산시기인 '8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이 영역에 비교적 많은 문헌이 생산되고 있는 요인은 도서관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라 도서관의 조직에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사서들의 신념과 대학도서관이 업무를 보고하는 상위기구의 방침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조직체의 혁신이 조직의 개편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학도서관이 학술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도서관이나 학술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될 것이라는 논의도 있다. 가상대학의 지원 기능을 대학도서관이 담당하는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최근 기록보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으로 '기록보존관', '대학기록관'의 기능도 대학도서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문헌도 있다. '고서실의 운영'에 대한 논문도 세 편 생산되고 있다.

또 하나의 주제는 최근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운사이징의 영향이 대학도서관에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문헌들이다. '대학도서관 경영의 새로운 시도', '대학도서관의 경쟁력 강화', '대학도서관의 특화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주제들이 그것이다. 대학도서관이 대학 캠퍼스내에 있는 컴퓨터센터나 외부의 인터넷 사업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 문헌들은 최근의 어려운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

6)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서의 발표 주제의 결정은 기획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이 영역에 포함되는 문헌의 양이 가장 많은(63건, 19.0%) 이유는 주제가 다양한 측면과 대학도서관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2. 장서개발

도서관 장서의 개념을 소유와 접근이라고 주장하는 전자도서관 시대에서도 장서개발의 중요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도서관에서의 장서문제는 언제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문헌의 조사에서도 38건(11.5%)으로, 구분된 주제분류에서 두 번째로 문헌이 많다. 장서개발 업무는 자료의 선정, 입수과정, 등록, 장서점검, 폐기 및 보존에 걸쳐 새로운 자료의 선정과정에서 부터 도서관에 입수되어 장서로 편입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작업이 있는 것이다. 또한 자료의 종류에 따라 수집방식이 다양하다.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고서, 회색문헌, 향토자료, 정부간행물 등이 대학도서관의 장서로 편입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자료와 e-Book의 활용에 관한 논문도 나타나고 있다. 수집방법에 따라 구입, 구독, 수증, 교환, 협동수서와 같은 형식이 있다.

장서개발에 관련된 문헌의 수가 많다는 것은 우선 하나의 자료가 선정되어 일련의 절차를 거쳐 한 도서관의 장서로 편입되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고, 자료의 종류가 다양하며 또한 수집방식이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 상황을 관찰한 결과가 자연적으로 많이 보고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장서개발의 영역으로 주제구분된 문헌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장서개발에 대한 고찰'이라고만 표시하여 장서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헌이 가장 많다. 국내외 학술지의 구독에 따른 문제를 지적한 문헌이 그 다음으로 많다. 여기에는 '외국학술지의 선정', '결호보충', '구입가격', '학술지 평가'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문헌들이다.

단행본이나 학술지와 같은 정도로 비중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고서, 학위논문, 향토자료, 정부간행물, 회색문헌 등의 수집과 관리방안에 대한 문헌도 각각 약간씩 있다. '여성장서', 'e-Book', '디지털 환경에서의 장서개발'을 다루고 있는 문헌이 한 편씩 있다.

자료교환 또는 학위논문 교환을 다루고 있는 논문이 '80년대에는 제법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서 학위논문을 완전하게 수집하지 못하던 시대에서는 개별 대학도서관이 다른 대학도서관과 교환방식으로 수집하는 방법이 유일한 길이었다. 지금은 학위논문의 원문까지 디지털화되고 있으니 학위논문 수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3. 전문직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에서는 전문직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전문직의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사서직이 그러한 일반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이 이해되며 검토되고 있다.⁷⁾

대학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이 생각하는 '사서직'에 관련된 문제의 이해와 관심사항에서도 연구자들의 그것과 유사하다. '사서의 전문성 제고 방안', '사서의 역할', '도서관 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 현장 사서들로 부터도 사서의 전문성 확보방안은 도출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래지향적인 주제인 '미래 대학도서관 사서', '디지털도서관과 사서', '지식 기반 사회와 대학도서관 사서', '21세기 대학 사서', '정보화 시대 사서' 등의 논제로 된 문헌의 생산이 많다. 사서 개인의 논문에서나 세미나, 워크숍의 주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타이틀이다. 이러한 유형의 논문에서는 사서 전문직에 대한 진단이 충분하지 않아, 제시하고 있는 대안에서도 현실성이 부족한 내용이며,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수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서들의 견문을 넓히는 방법인 외국 대학도서관 방문을 보고하는 사례도 있다. 단기간에 걸쳐 일회적으로 어떤 행사와 같이 시행되는 외국 도서관의 방문이 아니라, 개별 대학도서관의 사서진이 차례대로 일정 기간동안 외국 도서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장의 역할' '도서관 관리자의 역할' 또는 '중간관리자의 갈등관리'를 다루고 있는 문헌이 최근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인적구성과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리자들과의 관리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도서관 환경의 변화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이것은 지식과 정보의 생산, 수집, 정리, 봉사, 유통, 축적, 보존 등 모든 도서관업무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기술에 의한 업무수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도 정보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사서직의 재교육'에 대한 논문은 두 편만 소개되고 있다. 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관심사항이며 또한 해결방안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장 사서들이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된다. '주제전문 사서', '참고사서', '원로 사서 박봉석' 등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사서직의 전문성을 논의하고 있는 문헌의 수는 35건 (10.6%)에 이르고 있다.

7) 김용근, "한국사서직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4호(2002, 12), pp.283-306.

4. 네트워크

네트워크 (도서관간 상호협력)의 개념에는 개정판이 발간된지 오래된 종합목록을 들고 상호대차를 하던 시대에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목록을 탐색하고 소장처를 확인하고는 디지털로 원문입수를 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원문입수가 이루어진 활동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 도서관의 능력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도서관간의 협력으로 해결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전통적인 도서관 업무이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다른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범위를 넘어 상업적 정보제공기관의 등장으로 이런 기관의 이용이 실제로는 더 빈번한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조사된 문헌의 거의 대부분이 대학도서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실시한 세미나, 워크숍에서 발표된 것들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협의회에서 논의하기에 가장 적절한 주제가 '도서관간의 상호협력'이 되는 것이다.

네트워크 영역으로 구분된 문헌의 수는 31건 (9.4%)이다. 분석대상이 된 문헌에서는 타이틀에서 '상호협력', '상호이용', '상호대차', '공동이용', '정보공유'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학도서관 자료 상호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문헌과 특정 대학도서관의 상호이용의 실적을 사례로 하여 분석하고 있는 문헌이 대부분이다.

'80년대에는 대학도서관의 '상호협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의 분담목록', '상호협력에 의한 봉사업무 제고' 등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상호이용에 필요한 도구인 종합목록의 작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 종합목록 작성에 있어서 전산화 협력을 제시한 문헌도 있다. 학술정보 전산망의 구축에 관한 논의를 펴고 있는 문헌이 있다. 미국의 대학교수를 초빙하여 세미나에서 미국 대학도서관의 상호협력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하다. '상호대차 활성화에 따른 외국학술지 평가'를 시도한 논문이 있다. 이런 주제의 연구는 현장사서가 아니면 분석에 필요한 정교한 데이터의 입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외국학술데이터베이스 유통사업'을 추진하면서 당면한 과제들을 대학도서관 세미나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학술정보 공동이용'이라는 주제로 여러 차례 세미나에서 발표가 있었다. 외국학술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은 전적으로 대학도서관에서 이루지고 있기 때문이다.

5. 전산화

사립 및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가 결성된 '80년대 초반의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도서관전산화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도서관인은 없을 것이다. '80년대 초반 도서관전산화가 일부 대학도서관에서 시도되고 후반에 들어서면서 거의 모든 대학도서관에서 전산화를 위한 준비단계로 목록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그러다

가 '90년대에 오면서 도서관전산화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열풍이 몰아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분석대상이 된 문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80년대 초반에는 '도서관 전산화 방안', '전산화 문제'에 이어 도서관업무 부문별 전산화에 대한 보고가 나오고 있다. 수서 및 목록업무, 정리업무에 대한 전산화의 문제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 시기에 세미나의 주제로 가장 많이 채택된 논제는 특정 대학도서관의 전산화 추진 현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발표자들은 개별 대학도서관들이 전산화를 하면서 겪은 애로 사항을 공개하고 후발로 전산화를 계획하는 도서관에 도움을 주는 것과 그들 자신들도 여러 경험자들의 조언을 듣기 위한 것이다. 당시에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서 발표된 대학도서관의 전산화 사례는 다음의 대학도서관들이다. 한남대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경희대도서관, 서강대도서관, 동의대도서관, 고려대도서관, 연세대도서관, 이화여대도서관, 홍익대도서관, 포항공대도서관 등이다. 이것은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서 발표된 시기별로 나열한 것이다. 주로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사례 발표가 많았다. 따라서 사립대학 도서관들이 앞다투어 그들의 전산화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의 대학도서관 전산화에 관련된 주제로는 다음과 같은 구문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도서관 전산화 실시교의 경험담', '사대도협 전산화 추진 공동방안', '전산화 추진계획', '프로그램 개발 현황', '도서관정보 네트워크 Linnet', '정리업무 전산화', '수서·목록 업무 전산화', '전산화 추진 과정', 등의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교육부의 관계자도 세미나에 참석하여 '도서관정책: 대학도서관 전산화를 중심으로' 라고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산화와 관련된 주제는 'IT기술 이용 수서·목록업무 통합'이라는 한 단계 앞선 기술을 사용한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이 무렵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전산화위원회'를 만들어 사립대학도서관들이 공동으로 전산화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전산화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대학도서관전산화 편람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산화에 따른 대학도서관 서비스의 변화를 다룬 문헌은 두 편이 있다.⁸⁾ 이러한 현상은 전산화가 완전하게 정착되기 전에 디지털도서관⁹⁾이 소개되어 도서관전산화를 선두에서 달리던 많은 대학도서관들은 다시 디지털도서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도서관 전산화에 관련된 문헌의 수는 31건 (9.4%)이다.

8) 세미나의 발표주제로는, "도서관 자동화에 따른 서비스의 변화",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운영현황 및 발전계획" 등이 있다.

9) 세미나에서 발표된 디지털도서관에 관한 주제는 세 편이 있다. "대학도서관에서의 디지털도서관의 위상", "실용주의 입장에서 전자도서관의 구축방향", "미국의 디지털도서관 현황"등 이다.

6. 도서관서비스

분석대상의 문헌으로 도서관서비스 영역에 분류된 문헌의 수는 30건 (9.1%)이다. 대학도서관에서의 전통적인 서비스는 인쇄형태의 참고자료와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도서관 소장자료의 범위를 넘어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서비스는 이용자가 도서관을 통하지 않고도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도 된 것이다. 개인 정보이용자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서비스 방식을 고안해내어야 될 시기가 온 것이다. 최근 많은 도서관인들이 논의하고 있는 주제 게이트웨이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대상의 문헌에서는 '정보봉사 활성화', '도서관서비스 개선' 등의 표제로 발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술지를 통한 정보서비스 사례', '맞춤 정보서비스', 'SDI 사례', '주제관 형태 참고봉사', '문헌공급기관별 문헌제공서비스' 등을 논의하고 있는 문헌이 한 편씩 있다. 대학도서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봉사에 대한 변화된 개념을 읽을 수 있다. 막연하게 대학도서관 이용자 전체에게 봉사한다는 개념에서 특정 이용자를 겨냥하거나 아니면 특화된 내용으로 정보서비스를 하여야만 이용자 자신의 노력만으로도 상당한 정보입수가 가능한 시대에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가 어떤 활로를 찾으려는 의지를 알 수 있다.

한편 '80년대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지정도서제도의 실시', '독서지도', '독서실태의 조사'를 하고 있다. 지금도 대학도서관에서 독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디지털시대에 왜 독서가 필요한가를 시민단체(책 읽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와 언론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에 개방', '이용자 요구분석' 등을 다룬 문헌도 소개되고 있다. 급박하게 변화되는 정보환경 속에서도 대학도서관은 이런 업무를 꾸준히 수행해 나가는 의지가 필요하기도 하다. '학술데이터베이스의 활용방안'도 사례로 보고되고 있다. 대학구성원들에게 유용한 학술데이터베이스의 활용방법을 여러 매체를 통하여 소개하고 디스플레이 하는 업무는 무엇 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언제나 기대보다는 이용자들의 관심이 낮은게 문제이다.

수집된 문헌을 세부분하여 주제영역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도서관서비스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표시된 문헌의 양은 많지 않다. 도서관의 모든 업무는 사실 도서관서비스인 것이다.

7. 목록

목록법의 영역에 포함된 문헌들의 내용을 살펴 보면 시대별로 주제내용에서 분명한 구분이 나타난다. 이 주제는 세미나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는 영역이다. '80년대에는 개별

도서관에서 목록작업을 하면서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많고, '90년대에 오면 정보기술을 활용한 목록작성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80년대의 문헌에서는 '기본기입 선정', '표목선정', ISBD의 적용 문제', '로마자 표기법', 등 편목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요소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또한 악보, 지도자료, 학위논문, 비도서자료, 연속간행물 등 도서자료 중심의 목록법과는 다른 형태의 자료에 대한 목록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속간행물의 표목선정', '목록업무의 효율화', '동서·양서의 구분', '장서목록', '재정리' 등의 주제도 이 시기에 자주 다루어졌다.

'90년대에 들어서면 CD-ROM에 의한 편목 전산화', '온라인 공동목록 활용도 분석', '분담목록', '메타데이터' 등 디지털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따른 편목과정의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도서관 현장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분담목록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목록업무에 분류된 문헌의 수는 27건 (8.2%)이다.

8. 이용교육

대학도서관에서의 이용자교육에 대한 관심을, 분석에 이용된 문헌의 시대별 분포에서 살펴 보면 최근에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이용지도 방법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자료이용에 대한 안내에서부터 도서관 이용법을 지도해 오고 있다. 교수진에게는 새로운 학술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맞추어 그 활용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학술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국내 대행사들도 지역별 이용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주제구분에 속하는 문헌은 14건 (4.2%)이다.

수집된 문헌에서 이용자교육에 관련된 문헌을 소개한다. 전통적 이용교육 방법의 소개에서부터 정보기술을 활용한 방법까지 다양한 이용지도법이 발표되고 있다. 이 주제영역은 세미나에서 많이 발표되고 있다.

-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의 이용지도에 관한 조사연구
- 대학도서관에서의 이용자 교육에 관한 고찰
- 도서관 이용교육의 현황과 과제
- 대학도서관에서의 이용자교육
- 대학도서관의 웹기반 이용자교육에 대한 고찰
- 디지털 비디오 제작 및 활용을 통한 이용자교육
- 주제자료실 중심의 이용자교육
- 정보이용능력 개발을 위한 도서관 이용교육 프로그램 설계

- 학술정보 이용교육

9. 웹자원

대학도서관 사서들에 의하여 발표되고 있는 웹자원에 대한 문헌을 보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웹기반 정보봉사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웹기반참고서비스”와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등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된다. 분석된 문헌은 11건 (3.3%)에 지나지 않지만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음을 본다. 이 영역의 문헌은 '90년대 후반에 와서 나타난다. 이들 문헌의 표제를 제시한다.

-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의 실제
-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웹서비스에 관한 연구
- 주제게이트웨이 구축 사례
- 대학도서관 웹사이트 평가모델 개발
-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서평제공 서비스
- 온라인 참고질의시스템 개발
- 대학도서관에서의 웹구축 현황과 방향
- 웹기반참고정보원 사이트의 구축 사례와 발전 방향
-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포털 서비스
- 대학도서관에서의 MyLibrary Service

10. 기타 영역

분석을 위하여 시도한 세분 주제구분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분석 대상이 된 문헌의 양이 많지 않은 영역은 분류, MARC, 대출관리, 참고정보, 저작권, 인터넷, 전자도서관 등이다. 연구자들의 연구주제로는 많이 등장하고 있는 전자도서관에 관련된 보고가 도서관 현장의 사서들로 부터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IV. 대학도서관협의회 문헌과 학술지 논문과의 차이

연구자들의 연구논문과 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에 의하여 작성되는 논문에는 몇 가지 다

른 점들이 있다. 첫째, 연구주제의 결정이다. 연구자들은 연구주제의 결정에 있어서 연구자 개인의 지적 호기심에 따라 판단하지만, 도서관 사서들은 주로 도서관에서 직무수행 중에 일어나는 문제중심으로 주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은 문헌정보학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사서들의 논문은 어떤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개선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 집단에 의하여 발표되는 문헌에 대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양 집단의 업무수행 방식과 그들이 목표로 하는 일의 성격이 또한 다르다. 더구나 대학도서관협의회 세미나, 워크숍에서 발표되는 논문은 발표자 개인이 주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발표시점에서 대학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점이나 관심사항을 주제로 하는 것이다.

도서관 현장의 사서는 새로운 이론의 생산 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작성되는 보고서는 도서관 업무의 실행과정에서 이론을 적용한 결과를 실적형식으로 보고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현장의 사서와 연구자들과의 관계를 업무중심에서 해석하고 있는 다음의 글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론없는 실행이나 실행을 근거로 하지 않는 이론 모두 무의미하다. 자칫 현실과 실행을 근거로 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는 제한된 상황에만 적용되어 도서관학에 필요한 이론정립을 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학문적인 연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난이 대두되기 쉽다. 그러나 이 두 연구가 모두 필요한 것이므로 도서관학 분야의 모든 종사자들이 협력하여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연구를 시도할 때에 학문의 진정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¹⁰⁾

또한 두 집단이 생산한 논문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요소로는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주제구분하는 방식이, 발표하는 논문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수집된 논문에 대하여 주제구분하는 방식과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문제는 어떤 주제 영역에 연구된 문헌의 수가 얼마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 연구논문에서 사용된 주제구분 방식을 이해하면서 유사한 주제끼리 단순하게 양적 비교를 하는 것에 만족할 수 밖에 없다. 비교 대상이 되는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 엄영애, “도서관학 연구문헌의 주제분석” (1989)
- 조인숙·한상완, “문헌정보학분야 학회지의 논문분석” (1996)¹¹⁾
- 서은경, “정보학분야 연구동향분석: 정보관리학회지와 JASIS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1997)¹²⁾

10) 엄영애, 상계서, p.233.

11) 조인숙·한상완, “문헌정보학분야 학회지의 논문분석, 도서관, 제51권, 제1호(1996, 3), pp.114-139.

12) 서은경, “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와 JASIS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

- 정진식,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2000” (2001)¹³⁾
- 이치주, “현장중심의 문헌정보학분야 잡지를 통한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년-2000년” (2002)¹⁴⁾

위의 각 논문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제영역에 대한 문헌의 양을 다음에 나타내고 있다.

구분하고 있는 주제영역에 대한 기준이 다르므로 자세한 양의 차이는 알 수 없다. 이들 논문들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논문에서는 어떤 주제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그 중의 세 편의 논문은 연구과정에 이용된 인용문헌까지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에 논문: 자료의 조직관리 (16.8%), 도서관학 교육(8.8%), 자료수집과 장서개발 (8.0%), 봉사과 이용(8.0%), 도서관자동화(5.6%)
- 조인숙 · 한상완 논문: 대학도서관 (17.0%), 문헌정보학교육(11.9%), 분류(11.9%), 편목 (7.9%); 정보검색(22.7%), KORMARC(14.3%), 도서관자동화(9.9%), 자동색인(9.2%), 정보봉사(9.2%)
- 서은경 논문: 정보시스템(23.8%), 정보인식(19.2%), 정보처리(19.2%), 정보관리 (13.0%), 정보학일반(11.5%)
- 정진식 논문: 관중별도서관(8.5%), 참고정보봉사(5.8%), 정보검색(5.6%), 검색시스템평가 (5.5%), 교육(4.7%), 전문직(4.3%)
- 이치주 논문: 관중별도서관(16.6%), 정보사회(11.3%), 전문직(6.9%), 전자도서관 (6.3%), 분류(5.3%)
- 본 연구결과: 대학도서관 경영(19.0%), 장서개발(11.5%), 전문직(10.6%), 네트워크 (9.4%), 전산화(9.4%), 도서관서비스(9.1%), 편목(8.2%), 이용교육(4.2%), 웹자원(3.3%)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에서 주제구분한 문헌의 양과 본 연구에서 주제구분한 문헌의 양을 단순 비교하여 그 결과를 해석,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연구자들이 주제구분한 연구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헌의 양을 그대로 제시해 보았다.

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이 가지는 도서관과 정보환경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사항과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헌정보 현상에 대한 관심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 제14권, 제1호(1997, 3), pp.269-290.

13) 정진식,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200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2001, 9), pp.55-78.

14) 이치주, “현장중심의 문헌정보학분야 잡지를 통한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년-2000년”, 정보관리학회지, 제19권, 제3호(2002, 9), pp.145-160.

V. 결 론

본 연구는 과거 20년동안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이 당면하는 도서관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떤 부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 보는 것이다. 그들의 관심은 도서관 내부의 문제나 현상에 대한 것이거나, 아니면 도서관 환경과 관련된 문제인가도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지적 호기심에 따라 결정되는 연구주제와는 달리 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은 주로 업무수행 중에 당면하는 문제중심으로 그들의 연구논문의 주제도 결정되는 것이라 본다. 도서관 사서들의 관심사항은 도서관을 토대로 한 정보현상의 구명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을 중심에 두고 정보의 생산, 유통, 이용까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가령, 전자잡지를 이해하면서도 그것의 생산체계 보다는 도서관에서는 전자잡지를 어떻게 구독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인가를 알아보고 업무에서 실행하려는 것이다. 인쇄형태의 학술지와는 구독방식에서부터 이용방법, 보존법까지 거의 모든 절차가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없던 학술지 구독에서 권소시움의 구성, 라이선스 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구독법의 이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연구자이거나 현장 도서관의 사서이거나 모두,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사회적 현상이 도서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도서관은 그 현상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하는 것이다. 개별 도서관은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화의 아주 적은 부분만이 그들의 도서관에서 채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 속에서 일하는 사서들의 환경에 대한 이해도 특정 기술이 채택, 이용하는 시점부터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사서들은 업무수행을 하면서 여러 유형의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동료 사서와의 대화로 문제해결이 되는 수도 있지만 대체로 도서관의 구조적인 문제 예를들면, 가령 조직, 예산, 인력 등에 관련된 것들이 많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보고서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보고서가 생산되는 경우는 어떤 특정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체계화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상호대차를 통한 외국학술잡지의 평가'라는 논문은 그러한 경우이다.

연구자가 환경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은 현장 사서의 그것과는 다르다. 우선, 연구주제가 특정 도서관에서의 문제점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도서관 외부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더 관심을 보이는 수가 많다.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시기에 연구자들이 보였던 실물 도서관에 대한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관심사항을 알아 본다.

사서들은 디지털 자료의 생산과 유통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

응하고 있다. 환경의 변화를 도서관경영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환경요소를 시스템인 도서관에 입력할 때는 반드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조직에 대한 변화가 도서관 현장 사서들에게는 큰 관심사항인 것이다. 그러나 조직의 변화는 더 나은 도서관 성과를 낼 수 있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다. 최근 사립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팀제'의 성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자료의 생산과 유통으로 장서개념이 실물자료의 소장에서 소유와 접근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핵심자료는 소유, 주변자료는 접근'이라는 논의가 있지만 핵심자료와 주변자료에 대한 기준조차도 없는 개별도서관에서 과연 실행이 가능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전통적으로 대학도서관에 입수되는 자료의 종류, 입수방식, 특정 주제의 자료 등에 대한 논의는 많다. 최근에 달라진 정보환경에서의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풍성하지만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사서들이 주장하는 전문성 확보방안은 여러 웹사이트에서 제시되고 있다.¹⁵⁾ 사서를 위한 단위 도서관에서의 실무교육, 재교육에 대한 검토도 많지 않다. 문헌정보학 교육에 관한 논의는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서 수 없이 제시되고 있다.

통신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지난 시대에서는 도서관자료의 상호이용이란 사실 어려웠던 것이다. 인쇄형태로 제작되는 종합목록으로 자료의 소장처를 알아내기도 또한 어려운 일이었다. 이제 정보기술의 이용으로 대학도서관은 물론 상업적문헌제공기관의 정보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정 대학도서관에서의 원문입수 실적' 또는 '문헌제공 기관별 문헌입수 비교'와 유사한 유형의 연구가 더 많아져야 될 것이다.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전산화는 대학도서관운영에서 최대 화두였다. 관심이 많은 만큼 발표된 논문도 많다. 세미나, 워크숍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전산화 사례를 발표하였다. '90년대 후반에 오면서 전산화에 대한 관심은 디지털도서관으로 넘어갔다.

대출업무와 참고정보봉사를 다른 영역으로 주제구분하여 도서관서비스로 구분된 문헌의 양은 많지 않다. 특정 매체에 대한 특수 서비스가 최근에 나타나는 도서관서비스이다. 정보기술의 이용으로 도서관봉사의 개념을 과거 '봉사전담부서'에서 도서관의 모든 업무부서로 이동시키고 있다.

목록정보의 공개와 공유는 개별 도서관의 고유한 업무에서 협력도서관의 공동업무로 변환시키고 있다. 발표되고 있는 논문들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분담목록과 메타데이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웹기반 이용교육,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등 웹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봉사가 크게 관심을 끌고 있다. 웹서비스는 앞으로 모든 종류의 도서관에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15) 이들에 대한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delias.donggwi.ac.kr/library/korea>>; 도서관메일링리스트/ <<http://www.riss4u.n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사서 커뮤니티.